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5호 [루게 제25003호] 주제10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오수용 동지, 서홍찬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5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종자혁명을 다그쳐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의 작물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해당 부문과 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특히 농장에서는 생산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사료용종자를 들여다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순화시키고 재배방법을 확립함으로써 풀먹는 집짐승 먹이문제를 풀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사료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포전에 들어서시여 키높이 자라고있는 먹이작물을 보고



수확고가 높은 먹이풀을 널리 재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1116호농장에서 재배하고있는 《애국풀》을 전국도처에 널리 퍼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농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단위들과 세포지구 축산기구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들을 기르는 모든 곳에서 《애국풀》을 재배할수 있도록 종자 확보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비배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과학기술 지도서를 만들어 내려보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1116호농장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콩과작물과 우량품종의 강병이품종들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은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모범이며 기수, 선봉대라고 하시면서 기적같은 소식을 듣고 찾아올 때마다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는 농장, 돌아볼수록 정이 드는 농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종자문제를 해결하여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다고 하시면서 종자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또 보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멋있다고, 희한한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집짐승먹이문제를 푸시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흐뭇한 광경을 보시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116호농장에서 영양가와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먹이작물에 대한 시험재배에 성공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사료풀의 이름을 뭉소

《애국풀》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애국풀》의 영양화학적특성과 재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애국풀》은 조단백질함량이 많고 여러가지 미량원소가 충분히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소, 염소, 양, 토끼, 게사니, 돼지와 같은 집짐승들에게 좋은 먹이로 될뿐아니라 버섯재배용기질로도 리용할수 있는 먹이작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애국풀》은 오리새, 자주꽃자리풀과 같이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먹이작물에

비해 정보당 수확량이 몇배로 높다고 하시면서 이 종자는 먹이작물에 대한 기존관념을 완전히 바꾸어놓는 우량품종이라고, 한번 심어 여러번 베어 수확할수 있어 좋고 씨앗으로가 아니라 마디로 번식시키는것만큼 퍼치기도 유리하다고 하시였다.

축산에서 기본은 종자와 사료문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놓고볼 때 《애국풀》은 축산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먹이작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자면 풀만 조성을 전망성있게 하는것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116호 농장에서 선진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고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으며 병해충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은 다수확품종의 농작물

들을 육종재배함으로써 우리 당의 종자 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도, 시, 군 책임일꾼들이 이 농장을 참관하게 하여 당의 종자

혁명방침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직관적으로 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시험농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와 1116호 농장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농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나라의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계적수준의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 개발함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기어이 푸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 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합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합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스 크리스텐센, 에스바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안드로 카오 데 베노스, 아시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헬미 엘 하디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공화국 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12 일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모가 해방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적여져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603호
주체 104(2015)년 8월 6일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모범을 보인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용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	신의주혁명사적지관리소	황해북도대의봉사관리처 신령 휴게소	경성여자공작 제편직장
강남군종합식당	장연군세멘트공장	사리원경암출공장	라선인쇄공장
북창군 북창고급중학교	용진광산 선광직장	고려성공관 고려도자기학부	철도성자재상사 근동지구자재 공급소
신양고려약공장	강령군 부민협동농장 제2작업반	평壤시 벽성협동농장 청년분조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삼청광산 생필직장
순천은하피복공장	봉원웃공장	함경북도수문지질탐사대	
신의주마이스팅공장 마이싱직장	은파광산 굴진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단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동상을 찾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이 해방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수령 김정은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받들자!》라는 글씨가 적여진 12일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숙원을 실현하시였으며 민족단애의 특성면역과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수행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웰컴위원회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602호
주체 104(2015)년 8월 6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과학지식수준을 높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김철주사범대학 외국어 연구소
평양피복공장 2직장	수해봉수산사업소
평壤담배종이공장 2직장	수양산은하피복공장
평양도성 정보기술연구소	해주정년역
평壤북도정보통신국 시내직장	철도성 정보기술연구소
	은하기술준비소
	철도과학부원 철도자동화 공학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약동하는 기상으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펼치며 비약하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영웅적투쟁신화가 창조되는 백두대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위대한 선군명장 김정일원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가 있는 때로부터 110여 일, 불과 너댓달 안되는 나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전진이 일어났다.

1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지난 9년간 한해 평균 일일량의 5배이상, 최고일일량의 2.1배이상의 콘크리트기체를 하여 연례의 평균높이를 4월말에 비하여 30m이상이나 장성시켰다.

2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기본대상인 물길굴복공사가 위대한 전승철날에 맞나 계속되고 발전기설과 부속건물 등 중점적인 건축공사가 95% 단계로 넘어섰으며 발전소조립이 시작될지 열풍도 못되어 타민적외이 끝났다.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삼지연출전선공사가 계속되었고 살림집과 풍공건물건설 등 10여개 대상건설도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열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승훈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멀고 험한 길을 헤치시어 이곳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관의 책임일꾼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으며 고향사람들의 지성이 깃든 지원물자들이 와달라 청년들격대원들에게 열매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어제 그뿐이랴. 이곳 청년들 격대원들을 언제나 잊지 못해하시며 우리의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갖가지 신선한 물고기도 여러차례에 걸쳐 보내주셨다. 자신께서는 매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소식을 기다리셨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1, 2호발전소의 기본대상인 물길굴복공사를 위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소식을 기다리셨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1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기본대상인 물길굴복공사가 위대한 전승철날에 맞나 계속되고 발전기설과 부속건물 등 중점적인 건축공사가 95% 단계로 넘어섰으며 발전소조립이 시작될지 열풍도 못되어 타민적외이 끝났다.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삼지연출전선공사가 계속되었고 살림집과 풍공건물건설 등 10여개 대상건설도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열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승훈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멀고 험한 길을 헤치시어 이곳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2호발전소건설의 여러 대상 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군인들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명관철투쟁에서 단숨에의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각 부대의 군인들은 심장의 붉은 피를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여며 군민격의대회가 없는지식달도 못하는 사이에 발전기설과 살림집건설, 사무수리우안석축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의 70년력사를 청년강국건설사로 빛내이며 영웅적투쟁신화를 새겨가고있는 전체 청년들격대원들과 군인들, 건설자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새로운 조선속도를 기어 창조할데 애국충정의 맹세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병준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천지개벽되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

1단계에 이어 2단계 개건공사에 힘입어 벌어지는 중앙동물원을 둘러서면 가슴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다.

아직은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날리고 혼잡함과 불편기체들의 동음이 그칠새없이 들린다.

하나 본관건물의 입구로부터 우아하고 세련된 각이한 건축물들, 아담하고 그윽한 정서를 자아내는 구내길들, 분과 초를 다듬어 여기저기서 산악처럼 솟아오르는 시대의 기념비들을 보며 우리는 선군조선의 무진 달강한 날, 우리 문명의 척도를 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국국가, 인민의 락관을 일떠세우는 반면대개의 애국위업이든 나라의 경제력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돌이켜보면 대성건설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 건설을 위하여 지난 50여년의 갈피속에 있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 측면에서도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백두산철세위인들과 그들의 업적이 소중히 여겨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5월과 2014년 3월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이곳을 사회주의명국의 체도에 맞게 전면 시공을 직접 맡기시고 개건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당이 펼친 설계도따라 중앙동물원개건공사는 1단계에 이어 2단계에 들어서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1단계개건공사에서는 50여개의 동물사들과 건물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이 훌륭히 개건확장되었다.

멀리에서 보고도 저것이 어떤 동물사인가를 대충 알수 있게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시공된 동물사들은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도 해당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에 들어선것 같은 느낌이 들게 손색없이 꾸러졌다. 커다란 거꾸로가 고개를 쳐든 모습을 형성한 파충류, 원숭이관, 맹수사, 하마관, 코끼리사, 기린사, 영무새관 등 1단계공사에서 개건된 동물사들은 계절에 구애없이 참관자들이 찾아와 웃음꽃을 활짝 피울수 있도록 완공되었다. 개건확장된 맹수사의 정면은 강철유리로 대주어 공사라도 조선법을 비롯한 맹수들이 달려나오는것 같은 판상적외파를 주고 새로 일떠세워진 개건관에 들어서면 평면들이 뛰노는 남쪽에 온듯 하다.

1단계에 개건확장된 50여개의 동물사 하나하나를 돌아보노라면 감탄이 절로 나오고 상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문화휴식처를 마련해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가슴가득 어려와 지도모르게 눈시울을 적시게 된다.

머지않아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가 완공되는 그날이면 인민의 행복과 기쁨은 더없이 클것이다.

백두산조랑이를 형성한 덩치 큰 본관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희열과 평안에 휩싸이게 될것이다.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줄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을 돌아보게 되면 세계 문명의 단상에 우리가 서있다는 긍지로 가슴부풀게 될것이다.

거대한 강철기둥과 쇠골로 대조종을 형성하는 맹금사와 맹금사 그리고 큰 규모의 수족관, 철강사육관 등이 2단계개건공사를 통해 완공되게 되면 동물사양관리연구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도 보란듯이 일떠서게 된다.

이렇듯 우리의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비약한 속도로 문명의 상상들을 향해 출발하고있다.

10월의 개건확장에서 미처 오를 인민의 행복과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중앙동물원이 개건확장된다는 소식에 접한 외국들의 벗들도 앞을 다투어 화려한 동물들을 보내오고있다.

머지않아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문명이 어떤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명천

약동하는 내 조국땅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축물들을 건설속의 신화처럼 회화하고 건설하고있다.

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우리들을 위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땅에 펼쳐지는 위대한 후대관인 건설현장 하나 하나의 창조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인민은 조국의 귀족함을 더욱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건축물들에 당의 후대관이 비껴가 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된 건축물들을 통하여 앞날의 조국의 모습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총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부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 체육원, 평양과 원산에 훌륭한 일떠서고 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부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 체육원, 평양과 원산에 훌륭한 일떠서고 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부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 체육원, 평양과 원산에 훌륭한 일떠서고

과연 무슨 힘으로 아이들을

위대한 후대관이 안아올린 창조물들

부부모는 아이들, 나라였던 그 세월같은 길가의 조약돌신세를 면치 못했다.

선교의 대마를 불리우던 이들이 오는 내 조국땅에서, 위대한 우리 당의 품속에서 그 무엇도 부러울것이 없는 복받은 삶의 향유자로 되었다.

그가 부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렇듯 최상의 배려와 애정을 베풀어 주셨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총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부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 체육원, 평양과 원산에 훌륭한 일떠서고 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부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 체육원, 평양과 원산에 훌륭한 일떠서고

과연 무슨 힘으로 아이들을

위대한 후대관이 안아올린 창조물들

부부모는 아이들, 나라였던 그 세월같은 길가의 조약돌신세를 면치 못했다.

선교의 대마를 불리우던 이들이 오는 내 조국땅에서, 위대한 우리 당의 품속에서 그 무엇도 부러울것이 없는 복받은 삶의 향유자로 되었다.

그가 부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렇듯 최상의 배려와 애정을 베풀어 주셨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총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부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 체육원, 평양과 원산에 훌륭한 일떠서고 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부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 체육원, 평양과 원산에 훌륭한 일떠서고

과연 무슨 힘으로 아이들을

승고한 인민관의 구현인 선 권리성, 선 미학성

조국해방과 당장건 일흔돌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대한지의 정면한 포성은 온 나라를 진감하고있다. 수도의 곳곳에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 온 나라가 있는 곳마다 사회주의정신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국국가, 인민의 락관을 일떠세우는 반면대개의 애국위업이든 나라의 경제력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돌이켜보면 대성건설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 건설을 위하여 지난 50여년의 갈피속에 있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 측면에서도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백두산철세위인들과 그들의 업적이 소중히 여겨진다.

주제 102 (2013)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1차 건설부원일군대강습에 보내주신 서한에서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원칙에서 설계하며 원형목회와 지형의용물들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건축의 향유자도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에충실하고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다름없어 인민들이 리용하는것이기 가장 완벽하고 제일 훌륭하게 일떠세워지는 우리 당의 하느같은 사랑이 바로 선 권리성, 선 미학성에 함축되어있는것이다.

인민이 리용할 창조물들이기 예 몸소 건설주, 시공주로서 건설을 찾고 또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은 그 얼마나 웅심깊었던것인가. 하나하나의 건축물창조과정에서 형성한애니타라일의 색깔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

여러 단위에 건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 표식비가 청류관, 만경대현석사당, 금성사로공장에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제 70(1981)년 12월 총지시령을 통해 보통강변에 일떠선 청류관을 찾으면서 이릉도 지어주시고 민족로리를 발전시키며 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몸소 만경대현석사당의 리전을 잡아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61(1972)년 4월 완공된 사당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봉사원에서 지지도에 참여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주제 100(2011)년 9월 금성사로공장 밑철직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두고 밀착을 비롯하여 신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현지지도 표식비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게서 11일에 진행되었다.

최영남 인민봉사총국장, 관계부, 청류관, 만경대현석사당, 금성사로공장 일꾼들, 종업원들이 현지지도 표식비를 헌화하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시점으로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 어달리기대렬 철령을 넘어 오성산 도강, 전쟁로병들과 상봉

에 꽃다발들을 전정하였다.

철령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된 위대성상표모임에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인 한수민, 박광철을 비롯한 연고자들과 출연자들은 최정현소장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 병사들을 조국을 지켜준 참전 애국자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를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부대에 나선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셔 선군시대 총대령사의 남다른 영애와 긍지를 누려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보고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도따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받들고 이룩하고자할 신념의 불출인양 견결 참가자들이 부르는 《김정은장군가》의 선율이 절정의 신념과 다에 메아리쳤다.

전선부대의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의 방산을 목숨바쳐 지켜가시는 굳은 맹세를 서로 다지며 새로 이어달리기대렬에 들어선 부대군인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글말을 새긴 붉은 기발을 넘겨주었다.

인민군군인들은 선군정치의 머나먼 길을 걸으며 선군정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철령혁명사적비 붉은기이 어달리기

대렬을 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11일 선군의 산악 오성산에 도착하였다.

그 이튿날 불려도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의 절세의 위인상이 승영히 떠오르고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서 장군님에게 예치 오신 사회주의로건, 붉은기수호전의 력사가 가슴부풀게 안겨오는 오성산에 오른 인민군군인들은 새한 격정으로 가슴뛰었다.

오성산소소의 군인들과 뜻깊게 상봉한 그들은 이날 저녁 철세위인들의 명도사적이 깃들여있는 부대에서 이곳 강령들과 함께 혁명일화선동모임을 진행하였다.

실화 《장군님은 오늘도 오성산에 계신다》, 남상동작 《말하사 선군길이다》, 용남 《소식》 등에서 출연자들은 오성산달바람길

에 새겨진 백두산철세위인들의 선군장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따라 선군혁명의 한걸음 끝까지 나아갈 철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철산종령도 가시덤불길도 마다하지 않고서 갔고 찾으신는 강철의 선군명장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며 동해지구 붉은기이 어달리기대렬은 백두의 어린 혁명의 붉은기를 펼칠 휘날리며 오성산을 떠났다.

붉은기이 어달리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이 12일에 있었다.

전쟁로병들이 정영원, 김종성 등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제인 군사상과 전학장관이 되었던

기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를 파수하는 제국주의변합력을 타승하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칠 수 있었다고 자랑하였다.

전쟁로병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민군군인들은 미제와 피의역적제국을 또다시 제2의 6.25를 강요한다면 항복에서 도강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리고 온 세상을 보란듯이 조국통일대원들의 충효를 쓰 아올릴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인민군군인들은 평안도중 항 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신념을 심장에 안고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총대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최상기선동모임과 웅변모임도 가지였으며 백두의 혼연열풍 드높이 강화전도하도록 진행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만마련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나이 최단기에서 폭우로 인한 큰물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가 있었다는 불행한 소식이 접하여 당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보냅니다.

나는 확신과 귀국정부와 자연피해의 후과를 가지고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려는 마음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양

주제104(2015)년 8월 10일

나이 최단기에서 폭우로 인한 큰물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가 있었다는 불행한 소식이 접하여 당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보냅니다.

나는 확신과 귀국정부와 자연피해의 후과를 가지고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려는 마음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양

주제104(2015)년 8월 10일



조선의 자주통일은 동북아시아 평화번영의 초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기별보고서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 70년은 미국에 의해 강요된 우리 민족의 분열사이기도 하다. 세대가 두번도 넘게 바뀌는 이 기나긴 세월을 우리 민족은 물로 갈라져서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속에 살아왔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다. 우리 민족이 분열된 당시 지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식민지, 반식민지들이 편이아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를 지향하는 흐름이 세계정세발전의 주류를 이루었다.

우리 민족의 분열과 함께 시작되었던 동서냉전도 반세기를 넘기기에 전에 끝이 났고 《유일초대국》의 쇠퇴기도 시작되었다.

아시아의 경제발전속도가 서방을 통과하여 세계의 전략적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지고있다.

오늘 아시아에서도 정치, 경제, 군사적중요성이 날마다 높아지고있는 지역은 동북아시아이다.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의 대국들이 코를 맞대고 접해있는 예민한 지역인 동시에 그 중심에 미국에 의해 분열된 조선반도가 놓여있는것으로 하여 폭발성이 비할바없이 높은 세계의 화약고로 되고있다.

군사력의 집중도나 경제적잠재력의 풍부성으로 보아 세번된 세계대전 이전이 발달될 수 있는 곳도 동북아시아이며 반대로 세계대전을 방지하고 21세기의 세계적번영을 창출할 수 있는 곳도 다름아닌 동북아시아이다.

동북아시아가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되는가 아니면 세계적번영의 기반차가 되는가 하는것은 조선반도문제에 달려있다.

조선반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통일문제이며 조선반도의 미래,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업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조국해방일흔돌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주통일 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 생활력에 대한 연구자료를 담아 이 기별보고서를 발표한다.

자기 안속을 차리는 외세도 있으며 어느 일방의 정략을 들어줄것이 생색을 내면서 제 리속을 추구하는 외세도 있다.

외세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보다는 반목과 대결에서 더 리득을 보고있다.

우리 주변의 외세는 조선반도에 대한 리해관계가 각기 다른데로부터 북과 남에 대한 태도도 서로 같지 않다. 리념적인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분열 첫날부터 우리 공화국을 줄곧 적대시하여오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민과 항일, 반미의 한진호속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역사를 가지고있는 나라들도 있다.

따라서 일부 나라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방식문제에서도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것을 우려하고있다. 조선의 일방적인 《제2통일론》을 무력하고 지지하는 외세가 있는가 하면 북남사이에서 합의되었던 통일방식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외세도 있다.

이러한 외세를 통일문제에 끌어들이는 다른 민족의 장래운명이 외세의 동맹물로 되고 외세들의 사익의 희생물로 될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자주이자 통일이며 자주는 통일의 가장 중핵적인 원칙이고 방도이며 담보라는것,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주통일사상의 전수이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에서 그 어떤 미명하에 여기저기 외세를 찾아오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것만이라도 통일이며 민족의 살길이라는것,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분열 70년역사의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자주통일사상의 불패의 진리성이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통일의교》라는 미명하에 여기저기 외세를 찾아다니며 동맹을 모색하는 불순한 정략타수를 벌이고있는것은 이 땅에 평화적 통일을 불러오는 데에 위협만한 처사이다.

우리 주변의 외세는 북남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은 이여의 그 어떤 일방적인 정략을 들어주는것자체가 곧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고 통일을 저해하여 중국에 가서는 우리 민족의 적으로 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고 신중히 처신해야 할것이다.

그러한 꾀안들로 진실은 가리울수 없다.

전략핵력추수단들이 투입되고 상륙작전과 특공대작전과 같은 전형적인 공격훈들이 포함되고 그 목표가 《경양침령》으로 되어있는 전형연습을 《방어적》이라고 하는것은 목적을 전도하는 역사가 아닐수 없다.

미국은 이 전형연습들에 대해 《년례적》으로 계속해온 연습이라며 별치 않은 일상사처럼 묘사하려 하고있지만 여기에는 저들의 같은 부단히 갈증으로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그에 습관되고 만성화되도록 하여 우리의 억척력과 방위태세가 뛰어 생기도록 전하는 기도가 깔려있다.

미국이 수십년동안 계속해온 연습이므로 이제 와서 중지할 리유가 없다고 하고있지만 잘못된 행동을 오래동안 해왔다고 하여 바로잡지 못한다는것은 어불성언이다. 1992년과 1994년 미국은 우리 공화국과의 항의에 따라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한적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전형연습을 얼마나 오래동안 해왔던지에 관계없이 용단한 내리면 언제든지 즉시 중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마련되면 자주통일이 그만큼 촉진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세계적인 열정의 하나가 해소되어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스스로 정책전환의 길을 택한다면 대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공화국은 자기 식의 방책이 준비되어있다.

평화적환경은 우리 인민에게 한없이 소중한지만 진정한 평화는 구걸로써 얻어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시대의 변천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전환의 마지막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 절대 시정책이 불피고 가담을 총착점은 전쟁의 불도가니뿐이다.

조선반도에서 풀풀대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경우에는 절대로 정진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있다.

70년간의 민족분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맞서 세대를 이어 초진장속에 살아온 60여년만에 걸치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더는 지속시킬수 없으며 일단 전쟁이 일으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심이고 민심이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전을 통하여 실현되는 경우에도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할 대책들이 책임적으로 준비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주변나라들을 포함하여 지역공통의 번영에 이르게 되도록 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힘겨울 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스스로 정책전환의 길을 택한다면 대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공화국은 자기 식의 방책이 준비되어있다.

평화적환경은 우리 인민에게 한없이 소중한지만 진정한 평화는 구걸로써 얻어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시대의 변천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전환의 마지막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 절대 시정책이 불피고 가담을 총착점은 전쟁의 불도가니뿐이다.

조선반도에서 풀풀대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경우에는 절대로 정진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있다.

70년간의 민족분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맞서 세대를 이어 초진장속에 살아온 60여년만에 걸치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더는 지속시킬수 없으며 일단 전쟁이 일으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심이고 민심이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전을 통하여 실현되는 경우에도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할 대책들이 책임적으로 준비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주변나라들을 포함하여 지역공통의 번영에 이르게 되도록 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힘겨울 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스스로 정책전환의 길을 택한다면 대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공화국은 자기 식의 방책이 준비되어있다.

평화적환경은 우리 인민에게 한없이 소중한지만 진정한 평화는 구걸로써 얻어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시대의 변천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전환의 마지막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 절대 시정책이 불피고 가담을 총착점은 전쟁의 불도가니뿐이다.

조선반도에서 풀풀대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경우에는 절대로 정진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있다.

70년간의 민족분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맞서 세대를 이어 초진장속에 살아온 60여년만에 걸치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더는 지속시킬수 없으며 일단 전쟁이 일으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심이고 민심이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전을 통하여 실현되는 경우에도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할 대책들이 책임적으로 준비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주변나라들을 포함하여 지역공통의 번영에 이르게 되도록 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힘겨울 하게 될것이다.

1. 자주는 통일의 담보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외세에 의하여 분열을 강요당하였다.

나라가 태방할 때 미국은 조선의 38°선남쪽지역의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를 저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으며 당시 대일전쟁에 진입하였던 쓰촨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조선반도는 두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남조선은 강점한 미국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서둘러 단독외정방을 조작해냄으로써 조선반도의 분열을 교착시켰다.

도이월란드와 같은 전쟁도발국도 전쟁도 아닌 우리 나라가 이처럼 태방과 동시에 민족분열이라는 새로운 불행과 고통에 맞닥뜨리게 된 배경에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중요성에 눈독을 들인 외세의 리해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반도는 대륙침략을 꿈꾸는 해양세력에게 있어서 대륙에 첫발을 붙일수 있는 마지막 리상적인 교두보로 되어있다.

태평양양편의 해양세력으로서 세계제국을 꿈꾸고있던 미국은 유라시아대륙의 동쪽교두보인 조선반도를 통째로 다고하고있었으나 일본판동군을 격파하여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쓰촨군의 진격속도를 당해낼수 없었다.

이로부터 일단 조선반도의 절반만이라도 발을 붙이기 위해 우리 민족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던 제2차 세계대전의 무장투쟁이 38°선 이었으며 그로부터 5년후에 다시금 조선반도를 먹어보려고 침략의 불을 지른것이 1950년의 조선전쟁

조선전쟁에서 쓰촨의 참패를 당하고 다시금 제2차에 몰려왔던 미국은 남조선에 우리 공화국과 대륙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1960년대에 제시하신 경제국방병진로선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방력과 전쟁억제력이 날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침략야망은 실현되지 못하고 남조선에서의 정치군사적대결은 장기전을 띠게 되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졌지만 남조선의 실제적주인으로서 군림한 미국은 한사코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왔다.

저들이 준비하는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조선은 절대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미국의 전략적리안이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분열이 70년을 헤아리며 장기화되어온 기본원인이다.

70년간의 민족분열에서 줄곧 어부지리라는 안은것도 외세이다.

북과 남사이의 대결을 부추겨 정세를 긴장시켜놓고는 그것을 구실로 우리장사를 벌여 배를 불리우고 대륙침략을 위한 무력증강을 합리화해온것도 외세이며 우리 민족이 통일통일의 길을 걷지 못하는 기간을 벌려 열어서 전제국으로부터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이제는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제침의 꿈까지 꾸게 된것도 외세이다.

말로는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북남사이에서 때때로 이런도 들고 저런도 드는 식으로

분열의 지속은 그것이 민족의 통일성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전쟁 발발가능성을 불거뜨리게끔으로 내포하고있는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가족이나 북남사이의 불신의 골이 깊어가는데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계속 집착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치상태가 격화되고있고 전쟁의 불구름이 더욱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이로부터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켜 자주통일을 순조롭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현단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은 조선반도에서 당면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현실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된 원인은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수없이 벌어지고있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이다.

세계적인 평전시기에도 전쟁방지를 위한 동서쌍방사이의 대화와 협상통일을 위한 가장 선진적으로 가장 절박하게 논의된 한 문제가 바로 군사연습의 규모와 성격의 제한하는 문제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남조선당국과 함께 벌리고있는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뚜렷하고 구체적인 발로인 동시에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의 최대표

2. 평화적환경과 자주통일

분열의 지속은 그것이 민족의 통일성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전쟁 발발가능성을 불거뜨리게끔으로 내포하고있는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가족이나 북남사이의 불신의 골이 깊어가는데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계속 집착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치상태가 격화되고있고 전쟁의 불구름이 더욱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이로부터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켜 자주통일을 순조롭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현단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은 조선반도에서 당면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현실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된 원인은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수없이 벌어지고있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이다.

세계적인 평전시기에도 전쟁방지를 위한 동서쌍방사이의 대화와 협상통일을 위한 가장 선진적으로 가장 절박하게 논의된 한 문제가 바로 군사연습의 규모와 성격의 제한하는 문제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남조선당국과 함께 벌리고있는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뚜렷하고 구체적인 발로인 동시에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의 최대표

3.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미국이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스스로 정책전환의 길을 택한다면 대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공화국은 자기 식의 방책이 준비되어있다.

평화적환경은 우리 인민에게 한없이 소중한지만 진정한 평화는 구걸로써 얻어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시대의 변천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전환의 마지막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 절대 시정책이 불피고 가담을 총착점은 전쟁의 불도가니뿐이다.

조선반도에서 풀풀대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경우에는 절대로 정진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있다.

70년간의 민족분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맞서 세대를 이어 초진장속에 살아온 60여년만에 걸치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더는 지속시킬수 없으며 일단 전쟁이 일으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심이고 민심이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전을 통하여 실현되는 경우에도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할 대책들이 책임적으로 준비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주변나라들을 포함하여 지역공통의 번영에 이르게 되도록 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힘겨울 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스스로 정책전환의 길을 택한다면 대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공화국은 자기 식의 방책이 준비되어있다.

평화적환경은 우리 인민에게 한없이 소중한지만 진정한 평화는 구걸로써 얻어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시대의 변천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전환의 마지막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 절대 시정책이 불피고 가담을 총착점은 전쟁의 불도가니뿐이다.

조선반도에서 풀풀대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경우에는 절대로 정진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있다.

70년간의 민족분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맞서 세대를 이어 초진장속에 살아온 60여년만에 걸치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더는 지속시킬수 없으며 일단 전쟁이 일으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심이고 민심이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전을 통하여 실현되는 경우에도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할 대책들이 책임적으로 준비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주변나라들을 포함하여 지역공통의 번영에 이르게 되도록 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힘겨울 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스스로 정책전환의 길을 택한다면 대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공화국은 자기 식의 방책이 준비되어있다.

평화적환경은 우리 인민에게 한없이 소중한지만 진정한 평화는 구걸로써 얻어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시대의 변천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전환의 마지막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 절대 시정책이 불피고 가담을 총착점은 전쟁의 불도가니뿐이다.

조선반도에서 풀풀대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경우에는 절대로 정진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있다.

70년간의 민족분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맞서 세대를 이어 초진장속에 살아온 60여년만에 걸치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더는 지속시킬수 없으며 일단 전쟁이 일으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심이고 민심이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전을 통하여 실현되는 경우에도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할 대책들이 책임적으로 준비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주변나라들을 포함하여 지역공통의 번영에 이르게 되도록 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힘겨울 하게 될것이다.

백두산혁명강군은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도발자, 침략자들에게 선군조선의 본패를 보여줄것이다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대변인 담화

미국과 피뢰침들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부터 대규모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내 강행하라고고한다.

웅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투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혼란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위협천만 내린 핵전쟁공격연습이다.

지금 피뢰침들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선제타격을 넘두든 혼련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면서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F-22》 전투기를 비롯한 핵력추수단들이

미국과 피뢰침들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부터 대규모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내 강행하라고고한다.

웅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투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혼란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위협천만 내린 핵전쟁공격연습이다.

지금 피뢰침들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선제타격을 넘두든 혼련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면서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F-22》 전투기를 비롯한 핵력추수단들이

미국과 피뢰침들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부터 대규모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내 강행하라고고한다.

웅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투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혼란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위협천만 내린 핵전쟁공격연습이다.

지금 피뢰침들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선제타격을 넘두든 혼련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면서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F-22》 전투기를 비롯한 핵력추수단들이

미국과 피뢰침들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부터 대규모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내 강행하라고고한다.

웅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투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혼란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위협천만 내린 핵전쟁공격연습이다.

지금 피뢰침들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선제타격을 넘두든 혼련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면서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F-22》 전투기를 비롯한 핵력추수단들이

미국과 피뢰침들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부터 대규모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내 강행하라고고한다.

웅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투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혼란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위협천만 내린 핵전쟁공격연습이다.

지금 피뢰침들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선제타격을 넘두든 혼련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면서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F-22》 전투기를 비롯한 핵력추수단들이

미국과 피뢰침들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부터 대규모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내 강행하라고고한다.

웅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투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혼란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위협천만 내린 핵전쟁공격연습이다.

지금 피뢰침들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선제타격을 넘두든 혼련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면서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F-22》 전투기를 비롯한 핵력추수단들이

미국과 피뢰침들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부터 대규모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내 강행하라고고한다.

웅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투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혼란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위협천만 내린 핵전쟁공격연습이다.

지금 피뢰침들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선제타격을 넘두든 혼련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면서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F-22》 전투기를 비롯한 핵력추수단들이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폭로하는 문서 공개

일본이 과거의 피비린 내나는 범죄를 역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필사적으로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일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성노예민행을 폭로하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최근 비밀해제된 타이의 정보문서에서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이 발표되었다.

전후 타이로수송중에 수감되어있던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은 조선인녀성들의 수가 1500여명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 그중 460여명의 이름이

일본이 과거의 피비린 내나는 범죄를 역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필사적으로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일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성노예민행을 폭로하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최근 비밀해제된 타이의 정보문서에서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이 발표되었다.

전후 타이로수송중에 수감되어있던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은 조선인녀성들의 수가 1500여명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 그중 460여명의 이름이

일본이 과거의 피비린 내나는 범죄를 역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필사적으로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일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성노예민행을 폭로하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최근 비밀해제된 타이의 정보문서에서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이 발표되었다.

전후 타이로수송중에 수감되어있던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은 조선인녀성들의 수가 1500여명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 그중 460여명의 이름이

일본이 과거의 피비린 내나는 범죄를 역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필사적으로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일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성노예민행을 폭로하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최근 비밀해제된 타이의 정보문서에서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이 발표되었다.

전후 타이로수송중에 수감되어있던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은 조선인녀성들의 수가 1500여명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 그중 460여명의 이름이

일본이 과거의 피비린 내나는 범죄를 역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필사적으로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일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성노예민행을 폭로하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최근 비밀해제된 타이의 정보문서에서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이 발표되었다.

전후 타이로수송중에 수감되어있던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은 조선인녀성들의 수가 1500여명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 그중 460여명의 이름이

일본이 과거의 피비린 내나는 범죄를 역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필사적으로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일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성노예민행을 폭로하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최근 비밀해제된 타이의 정보문서에서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이 발표되었다.

전후 타이로수송중에 수감되어있던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은 조선인녀성들의 수가 1500여명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 그중 460여명의 이름이

일본이 과거의 피비린 내나는 범죄를 역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필사적으로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일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성노예민행을 폭로하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최근 비밀해제된 타이의 정보문서에서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이 발표되었다.

전후 타이로수송중에 수감되어있던 일본군성노예로포로명단은 조선인녀성들의 수가 1500여명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 그중 460여명의 이름이